

지방의원 ‘쥐꼬리 소득세’ 왜…

연봉 절반이 세금없는 ‘의정 활동비’

지방의원들이 연봉에 비해 적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현실은 올해 도입된 지방의원 연봉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연봉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어 일반 시민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바람에, 일반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연봉제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태
연봉이 2720만원인 서울 강남구 의원은 한 달에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16만6660원(연 1400만원)을 받는다.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는 그중 월정수당에만 부과된다. 강남구의원이 본인만으로 구성된 1인 가족일 경우 소득세는 2080원 주민세는 200원이다. 부양가족이 1명 있는 2인 가족이면 소득세 580원 주민세 50원을 낸다. 가족이 4인 이상일 경우 두세금 다 면제된다. 부양가족은 전업주부, 20세 이하 미성년자, 60세 이상 남자 또는 55세 이상 여자 가족을 말한다.
연봉이 3024만원인 서울 금천구 의원은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42만원(연 1704만원)을 받는다. 의원 혼자 가정을 이루는 경우 소득세는 8440원 주민세는 840원을 내고, 2인 가족이면 소득세 6940원 주민세 690원을 낸다. 3인 가족이면 소득세 1840원과 주민세 184원, 4인 이상 가족이면 모두 면제다.



전문가 “직장인·자영업자와 형평 맞아야” 지적

◆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지난 5월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하지만,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받는 활동비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지방의원 중 소득세를 한 톨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한 달 소득이 104만5000원 이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봉이 1254만원 이하면 면제되는 것이다.
기초 시·군·구 의원들의 연봉은

대부분 2000만~3000만원대다. 하지만 면제되는 의정활동비를 빼버리면 연봉들이 대폭 내려간다. 1254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기초 시·군·구 의회만도 95곳이나 된다.
의정활동비를 뺀 연봉이 1254만원을 넘기더라도, 부과되는 소득세가 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과하는 소득세가 급격히 적어지는 소득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의정활동비가 연봉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기초 시·군·구 의회는 전체 230개 중 93개(40.4%)나 된다.
◆지방의원 연봉 구조 개편 필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행정자

치부 등에 지방의원 세금 징수를 건의키로 했다. 이 단체는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윤여천(42) 세무사는 “의정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된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적 용도 등에 사용된다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며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을 지키려면 지방의원 연봉에서 의정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블로그)jhpark.chosun.com
최형석기자 (블로그)cogito.chosun.com

■시·군·구 의원 연봉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3인 가족 기준, 단위:원)

	최고 연봉 최저 연봉	연봉	월 소득세·주민세
서울	서대문구 서초구	3804만 2520만	2만1070 0
부산	진구 서구	3600만 2532만	2만3790 0
대구	달서구 서구	3360만 2655만	1만1033 1190☆
인천	남동구 옹진군	2960만 2304만	340 0
광주	북구 남구	2821만 2766만	연말 일괄 부과 예정 2만2000☆
대전	서구 동구	2880만 2460만	3750 0
울산	울주군 중구	3120만 2820만	4640 0
경기	성남시 여주군	3799만 2250만	2만3386 0
강원	태백시 철원군	2988만 2220만	3만2400☆ 0
충북	청주시 증평군	2820만 1920만	0 0
충남	천안시 태안군	2796만 2011만	5540☆ 0
전북	전주시 무주군	3441만 2120만	1만2870 0
전남	광양시 강진군	2883만 2220만	연말 일괄 부과 예정 0
경북	구미시 문경시	3000만 2120만	1353 0
경남	창원시 합안군	3720만 2157만	2만240 0
제주	기초 시·군	7월부터 폐지	

☆=가족 수 상관 없이 일괄공제 후 연말정산



딕 체니 미국 부통령(연단 앞쪽 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오전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 5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한 연설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워싱턴 한국戰 정전행사 체니부통령 이례적 참석

“한국서 흘린피 헛되지않아”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이 2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3시)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협정 5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니 부통령은 지난 2003년 한국전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역 헌화식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본행사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체니 부통령 본인이 참석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번 행사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과거 정전협정 기념행사에는 보훈부 장관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 관례였다. 주미 한국대사 관측도 “체니 부통령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통령실에 확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미국 재향군인회와 한국 재향군인회측 인사, 한국에서 온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체니 부통령은 “한국전에서 미군 3만6000명이 죽고, 9만명이 부상당했으며, 8000명은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 “한국에서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서 북한은 시커먼데, 남한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깨지려야 깨질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미 재향군인회 로빈 피어치니 한국전참전가

족협의회 회장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체니 부통령이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딕 캠퍼스 내무장관은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는 만큼 전몰 장병들이 흘린 피는 국가 건설의 초석이었다”면서 “미국은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모든 전우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한국 국민을 대신해 한국을 위해 싸우다 간 모든 전몰 미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체니 부통령이 이번 기념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적잖은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체니 부통령이 중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했었다.
이날 행사에는 체니 부통령 외에도 전향기념공원을 관장하는 딕 캠퍼스 내무장관, 앤소니 윌리엄스 워싱턴DC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등 35명의 대표단과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군대사 10여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과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헌화식이 열렸고, 이날 저녁엔 워싱턴 근교의 한 호텔에서 한·미 참전용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만찬이 개최됐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블로그)wschoi.chosun.com
이원희기자 (블로그)ymay2.chosun.com

5000억 터키 훈련기 시장 잡아라

방산업체 KAI, 브라질 기종과 최종 경쟁

사업 규모가 5억 달러(약 5000억원)에 달하는 터키 기본 훈련기 사업을 놓고 한국과 브라질 업체 간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됐다. 우리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국산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防産) 수출 사업이 된다. 27일 방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브라질의 엠브레이어가 터키 기본 훈련기 사업에 응찰했다. 유력한 경쟁자로 예상됐던 스위스의 필라투스사

는 터키와 스위스 정부간 정치적 갈등 때문에 배제됐고 미국의 레이씨온사는 나중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응찰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기종이 선정될 이 사업은 공군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1단계 훈련을 맡는 기본훈련기 50여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 세계 기본 훈련기 사업 중 제법 큰 규모여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KAI는 KT-1‘웅비(雄飛)’ 기본 훈련기, 엠브레이어는 EMB-314 ALX ‘슈퍼 투카노’ 기본 훈련기를 각각 대표로 내세웠다. KT-1은 국내 독자기술로 처음 생산한 항공기다. 1988년 개발에 착수, 98년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2000년 공군에 인도됐다. 개발비는 1000억 원. 2001년 국산 항공기로는 처음 인도네시아에 7대(6000만 달러)가 수출됐으며 작년에 5대를 추가 수출했다. KAI는 인도네시아에 8대의 추가 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도 수출을 추진 중

이다. 특히 KT-1에 기관포와 로켓 등 무장을 장착한 KO-1 전술통제기는 ‘미약과의 전쟁’을 펼치는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게릴라 소탕작전에 적합한 기종”으로 호평을 받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이어의 슈퍼 투카노는 기본 훈련기로 널리 사용돼온 투카노를 개량한 것이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총 30여대 구입 계약을 맺었다. KT-1보다 성능은 다소 우수하지만 가격이 훨씬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유훈원 군사전문기자 (블로그)bemil.chosun.com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가, 고밀미 동물 인권과 더불어 함께 인간 및 동물, 동식물 및 환경을 지니는 동물임을 선포

문화는 변합니다.

개는 반려동물입니다. 식용이 아닙니다.

선영이의 눈물...

열두살때 선영이네 집에는 누렁이 전들이 있었습니다. 전들은 선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크게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뒤통수에 놀이를 할 때는 옆에 꼭 붙어 따라다니던 유독한 선영이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선영이는 사랑하는 전들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선영이가 기쁠 때나 우울할 때에 늘 곁에 있어주던 누렁이 전들이.. 그 전들이가 누렁이에게 알려가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어린 선영이로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혹자들은 개고기반대운동들 두고 문화 상대주의라는 중, 제국주의에 대한 추종이라는 중, 문화 상대주의도 모르는 행위들이라 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선영이로 하여금 평범한 추억을 간직해 했던 누렁이, 그 누렁이와 어린 선영이의 눈물 사이에는 논리적 공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고기반대운동들은 정서 교감을 나누던 동물들을 밥상에서 만나고 싶지않은, 그 어떤 논리보다 부정될 수 없는 '선영이의 눈물' 그 자체일 뿐입니다.

식용견과 애견이라는 인위적 구분은, 인간 권회적 동물인 개의 속성까지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는 반려동물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Animal Freedom Korea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서울 신탄구 영등포로 307-18 http://www.animals.or.kr
사고의 습관, 그 장벽을 깨고자 하는 일에 아름다운 동물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개척

■ 국민은행 806201-04-005468 (사)한국동물복지협회
■ 농협중앙회 015-17-002592 (사)한국동물복지협회